

신석정 초기시의 환상성 연구*

정숙인**

|| 차례 ||

- I. 서론
- II. 시와 환상성의 배경
- III. 결여의 보충과 전복의 환상성
- IV. 이상적 자아와 실존적 의지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신석정 초기시의 환상성에 초점을 두고 그의 첫 시집 『촛불』과 두 번째 시집 『슬픈 牧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 두 권의 시집에는 자연을 소재로 시적 자아의 결여를 보충하려는 전복의 환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상적 자아와 실존적 의지를 통해 시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환상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능동적인 산물이다. 이는 비실재적이고 모호한 이미지로써 신석정 초기시에 있어서 모순된 현실에 대한 일탈의 형태로 출현하여 저항과 전복의 방식으로 작용한다.

1930년대 후반은 일본 제국주의적 체제가 더욱 강화된 시기로 문학에 있어서도 내선일체의 허구에 대해 저항의 방법을 따르거나 또는 침묵하면서 인생과 자연의 경계를 원초적 생명력으로 표현해내기도 했던 시대이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요인으로써 신석정은 『촛불』에서 그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811).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대상이 자연이며 현실의 결여를 가상의 공간인 ‘어머니’라는 대상을 통해 구현해낸다. 이는 비현실의 세계로 기존의 관념들을 전복시키고 회복하려는 발로로써, 프로이트 이후 인간의 잠재의식의 반사실적 본질을 환상이란 말로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상적 자아와 실존적 의지로 표현되는 『슬픈 牧歌』는 현실 대응책으로써 사회 참여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촛불』과는 다른 시세계를 함축하고 있다. 먼 나라의 표상적인 체계에서 현재를 직시하면서 수용하기에 이른다. ‘밤’은 어둠이기에 오히려 존재의 중심부를 인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시간을 직면할 수 있다. 또한 ‘인사로푸’를 통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염원과 확신을 다진다. 이는 어둠이 주는 고통을 감내하는 인고의 정신이며,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촛불을 제거함으로써 찾아올 새벽을 기다리는 이상적 자아를 구축해낸다.

신석정 초기시의 환상성 논의는 불합리한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 흐름에 순응하는 한 방법으로써 실재하지 않는 가상공간을 설정해놓고, 그 이미지들 내부에서 결여를 보충하기 위한 전복의 환상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수용해가는 재생 의지의 시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신석정 시세계의 자연미학적 정서의 폭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주제어 : 신석정, 환상성, 결여, 전복, 이상적, 재생, 의지

I. 서론

신석정(1907~1974)의 초기시집 『촛불』(1939)과 『슬픈 牧歌』(1947)를 중심으로 환상성 연구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는 신석정 시에 있어서 일제강점기와 해방직후의 시련과 비극을 체험하면서 자연을 통해 이미지의 환상성이 드러나는 시기로 신석정의 전체 시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기시¹⁾ 『촛불』과 『슬픈 牧歌』는 같

은 시기에 창작되었지만 두 권의 시집은 서로 특징이 다른 변별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촛불』에서 무의식에서 비롯된 ‘어머니’라는 비실재적이고 모호한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의 모순을 저항과 전복의 방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슬픈 牧歌』는 극히 현실적이고 사회 참여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상적 자아를 구축하고 있다.

신석정 초기시의 환상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시는 주로 자연이나 전원의 의미에 대해 연구²⁾되어 왔으며, 신석정 시의 환상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 있다. 신석정에 대한 논의는 김기림³⁾에 의해 처음 거론되었는데 “환상 속에서 형용사와 명사의 비논리적 결합에 의하여 아름다운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빚어내고 있으며”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새로운 이상세계로 전이하고자 한 특색 있는 시인으로 평한 바 있다. 정태용⁴⁾은 “제1시집 『촛불』에서 목가적인 전원의 세계를 낭만적인 신비에 싸서 모더니즘과 이미지즘 등의 기술을 이용하고, 제2시집 『슬픈 牧歌』에서는 일제의 압박에서 견뎌내는 그의 신념에 대해 평한다. 소미⁵⁾는 신석정 초기시 연구에서 정신분석학적 관점

1) 기존 연구에 따라 초기시를 제1시집 『촛불』(1939), 제2시집 『슬픈 牧歌』(1947), 중기시를 제3시집 『氷河』(1956), 후기시를 제4시집 『山の序曲』(1967), 제5시집 『대바람 소리』(1970)로 분류한다.

2) 박은미, 「신석정과 김상용 시에 나타난 자연비교연구」, 인문과학논집, 제16집, 2007.

문두근, 「신석정 시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 건국대 대학원, 1981.

김경복, 「신석정 시 연구: 유토피아 의식 연구」, 2001.

김옥성, 「신석정 시의 초기시의 근대적 자연미와 공동체적 연구」, 정신문화연구, 36(4), 2013. 유윤식, 「신석정 초기시 고찰」, 인문학 연구2, 1995.

이길상, 「신석정의 중기시 연구」, 국어문학, 2016.

국효문, 『신석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8.

3)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人文評論」 창간호, (1939, 10), p.84.

4) 정태용, “신석정론” 『現代文學』, (1967, 3), pp.263~269.

에서 환상성을 거론한 바 있고, 강외석⁶⁾은 『촛불』에서 ‘밤’이나 ‘물’ 이
미지가 모태로의 회귀 본능을 나타내는 심리적 기제로 해석했으며, 허
소라⁷⁾는 아동심리를 표출한 심리학적 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또한 유윤식⁸⁾은 신석정 초기시에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과 꿈
의 세계의 동경에 대해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신석정 시의 제1시집
『촛불』에서 나타나는 환상성에 대한 특징적인 요소와 제2시집 『슬픈 牧
歌』에서 표출되는 사회인식의 실존적 전제 사이의 관계를 포괄하여 초
기시 전체를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시와 환상성에 대한 관련 양상을 추적 검토하면서 기존 논의들을 수
용하는 한편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환상성은 독자들이 환상적이라는 느낌을 갖는 요소들을 말한다. 특
히 문학적 수사나 기법 등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아이러니’, ‘패러독스’,
‘은유’, ‘낯설게 하기’ 등이 이 범주에 해당되며,⁹⁾ 이로 비추어볼 때 환상
은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으로 현실성과 대비될 때 그 입
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환상은 현실로부터 벗어난 비합리적인 것, 실제
하지 않는 것, 규정되지 않아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또는 가능하지 않는
어떤 강제력의 표현인 것이다. 우리의 의식에서 작용하는 삶의 체계와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욕망의 체계를 비틀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상정
하는 것이다.¹⁰⁾ 이러한 환상성에 기반한 시들의 연구는 주로 1990년대

5) 소 미, 「신석정 초기시에 구현된 상상계 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2016.

6) 강외석, 「신석정 시 연구: <촛불> 시집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경상대 석사학위논
문, 1991.

7) 허소라, 『못다 부른 목가-신석정의 생애와 문학』, 석정문학연구원, 2014, p.69.

8) 유윤식, 앞의 책, p.49.

9) 배현자, 『이상 문학의 환상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13.

10)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pp.563~564.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왔다.¹¹⁾ 환상은 불확실한 현실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상상력의 능동적감성의 작용이다. 따라서 신석정 시에 있어서 환상성의 이미지는 현실의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상황의 대처방안으로써 실존하지 않은 가상의 공간인 ‘어머니’라는 현실과 분리된 세계이다. 이는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을 이상적 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며, 부조리한 현실을 향한 자기표현이며 전복적인 환상¹²⁾ 감각으로 작용한다. 라캉에 따르면 텍스트는 작가의 경험과 무의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고 왜곡할 수 있으며, 언어의 자율성을 통해 작가의 욕망이나 결여가 무의식적 징후¹³⁾로 독자에게 전달된다고 해석한다.

이렇듯 시는 미메시스와 환상¹⁴⁾, 또는 환상 충동과 모방 충동¹⁵⁾ 두 가지 산물로 산출해낸다. 따라서 본질적인 상상력의 두 층위에서 ‘환상적인 시’를 대상으로 검토하겠다.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모호하며 불확정적인 이미지인 환상성이라는 개념으로 신석정 초기시에서 나타나는 결여와 전복의 상상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이창민, 「한국 현대시의 환상시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7집, 2004.

_____, 「이장희 시의 낭만성과 환상성」, 『우리어문연구』, 제23집, 2004.

_____, 『현대시와 판타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8.

권 온, 「김춘수 시의 환상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2007.

이현승, 「백석 시의 환상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2012.

박호영, 「장만영 시의 환상성 연구」, 『국어교육』, 제113호, 2004.

12) 로지매리 켈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pp.14~15.

13) 김 석, 한국프랑스철학회 역, 「자율적인 시니피앙 논리의 효과적인 문학」, 『프랑스 철학과 문학비평』, 문학과 지성사, 2008, p.17.

14) 캐서린 흄,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2000, p.52~55.

15) 윤지영, 「‘환상적인 시’와 ‘환상시’의 가능성」, 『한국문학과 환상성』, 서강여성문학 연구회 편, 예림기획, 2001, pp.160~190.

II. 시와 환상성의 배경

환상과 관련하여 시를 논의 하는 데는 약간의 변별성이 존재한다. 츠베탕 토도로프, 로즈매리 잭슨, 캐서린 흄 등 환상에 대한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환상에 대한 개념이 각기 다르고, 이들의 논의 또한 주로 소설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환상시 또는 환상적인 시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연구들이 꾸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환상성을 지닌 시를 창작하는 시인들이 있고, 그 작품들이 포스트모던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1990년대 이후를 근거로 해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¹⁶⁾ 일제 강점기나 1950~60년대 현실로부터 일탈을 시도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었던 우리의 격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환상적인 시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석정의 초기시가 환상시로써 논의될 만한 특성을 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지만 그 시대와 맥을 같이한 신석정의 초기시의 환상성에 대한 접근은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시와 환상성에 대해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츠베탕 토도로프는 현실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환상이며 또한 ‘경이’와 ‘괴기’의 장르로 나누고 그 두 장르의 경계 선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환상을 파악한다.¹⁷⁾ 그의 관점에서 환상은 ‘망설임’이 존재해야 하며, 끊임없이 사라져가는 장르로 시를 환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서사 장르에만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시보다는 서사 장르가 더 재현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

16) 박호영, 앞의 책, p.745.

17) 츠베탕 토도로프, 이기우 역, 『덧없는 행복-루소론·환상문학 서설』, 한국문화사, 1996, p.132.

에 서사장르나 희곡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바레네체아와 브룩 로스의 주장에 의하면 특히 바레네체아는 역사적으로 비추어볼 때 시가 비재현적이거나 비묘사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토도로프의 이 같은 정의는 오히려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환상문학과 시의 대립 자체는 재현적 문학과 비재현적 문학으로만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은 “문학적 속박으로부터 야기된 결핍을 보상하려는 심리, 곧 결여를 보충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환상은 욕망에 관한 부재를 추구하려는 데에 있으며, 환상성은 현실에 대한 ‘전복적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환상은 사실적인 이면의 무의식을 표출한 힘이며¹⁸⁾, 자크 구아마르나 롤랑 스트라글리아티 또한 환상은 “현대인들의 상상력을 무의식과 연관시키는 수단”¹⁹⁾으로 파악하여 방어기제를 잠재우는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캐서린 홈에 의하면 『환상과 미메시스』에서 환상은 미메시스와 함께 문학을 산출해내는 본질적인 충동의 하나로 결핍된 것, 결여의 갈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독자의 언어습관을 변화시키려는 은유적 심상, 그것은 ‘등치적 리얼리티로부터의 일탈’²⁰⁾이며, 공상이나 광란, 구원의 희망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꾼다는 것이다. 그는 토도로프에 대해서는 망설임을, 톨킨은 즐거움, 어원은 게임을 강조하고, 잭슨은 환상이 지닌 전복이면서 억압된 것들에 대한 표현 수단으로 환상을 이해했다. 홈은 환상을 장르나 형식으로 인해 배제되고 국한된 것에 대해 유연하게 대

18) 로지메리 잭슨, 앞의 책, pp.14~15.

19) 프랑수아 페이몽 다니엘 콩페르, 고봉만 외 역, 『환상문학의 거장들』, 자음과 모음, 2001, p.14.

20) 캐서린 홈, 한창엽 역, 앞의 책, p.52~55.

처해야 한다는 정의를 제안한다. 문학이 미메시스와 환상 두 가지의 산물로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모든 개별 작품에 있어서 모방과 환상 요소를 동시에 언급하여 시나 희곡, 영화와 환상의 연결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는다.

윤지영은 토도로프의 견해를 일견 따르는 반면 시를 환상이라는 용어로 적용할 수 있고, 상상력의 창조적 산물인 예술로 범주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²¹⁾ 초현실적 사건에 대한 수용자의 망설임이라는 규정에 관해 특히 초현실적 사건인 조건을 초현실적인 이미지나 비일상적인 이미지의 연쇄로 수정하여, 수용자의 망설임이라는 조건은 생소한 이미지에 대한 합리화로 대치하면 환상시가 장르로써 성립한다는 결론이다. 그리하여 텍스트의 초자연적인 사건에 있어서 지시적으로 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초현실적이고 비일상적인 맥락이 유지되어 환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지영은 토도로프의 환상 논의가 서구의 특수한 현상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진 하나의 귀납적 시학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 현대시의 환상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작품들에 적합한 환상의 조건들을 마련하여 시를 대상으로 환상을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주장한다. 시는 상상력의 창조적 산물이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시를 포함한 모든 예술작품이 환상이라는 범주에서 논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모방충동과 환상충동의 역학관계에서 환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들인 ‘환상적인 시’를 들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하여 언어 관습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창출해낼 수 있는 ‘언어적 환상’과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른 관념으로 수렴할 수 있는 ‘알레고리적 환

21) 윤지영, 앞의 책, pp.160~190.

상', 그리고 '순수 환상시'를 말했다. 환상시는 초현실적이고 비일상적인 이미지들로 구체적인 대상을 환기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에는 탈현실화시키는 기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철²²⁾에 의하면 판타지는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에서 배제된 타자성과 불확정성을 탐구한다는 것이다. 환상은 초월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 위치하여 가상이면서 현실에 존재하며 인간 내부의 광기나 잔혹성은 문명화된 질서에 타자로 존재하면서 타자성에 대한 회복으로써 문학 기법에 낱설게 하기로 표현된다. 몸과 의식이 불일치했을 때 그것이 결핍으로 존재해 현실의 시공간에서 벗어나 몸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판타지 문학은 각 사회의 맥락에 의해 구성되고 생산된다는 것이다.

최기숙²³⁾은 환상을 기존의 질서와 경계를 해체시키는 새로운 인식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의식의 경계를 해체시키는 망설임, 모호성, 인식의 균열 등으로 체험되며, 텍스트 내에서도 시의 특성인 서정성의 변이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환상으로써 모순된 현실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인공적인 언어가 탄생되며, 문학에서 환상은 억압되고 은폐되었던 욕망이 도피의 형태로 출현하여 현실적 질서에 저항과 전복의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창민²⁴⁾은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경이의 세계와 서사의 변형으로 또는 욕망의 표출과 불안의 표현으로써 전복의 기획을 도출해냈다. 이는 토도로프, 잭슨, 흄, 윤지영의 논의를 정리하여

22) 노 철, 「판타지 문학의 타자성과 불확정성」, 『문학마당』, 2005.

23)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24) 이창민, 「한국 현대시의 환상시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7집, 2004.

환상성이 드러난 시를 주제별로 엮은 것이다.

우리의 무의식은 일관성 있는 진실을 제공해주지는 못하지만, 무의식의 진실은 존재의 차원에서 구해지며 존재의 근간을 이룬다. 욕망이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벌여놓음으로써 난처하게도 하지만 욕망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환유적 운동을 보여준다. 따라서 라캉은 “나는 내가 아닌 곳에서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존재한다”는 애매모호함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욕망은 결여를 표출하는 의미로 나타난다.²⁵⁾

이러한 논의들에 힘입어 신석정 초기시에서 나타나는 환상성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신석정의 시적 상상력은 소년적인 꿈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타난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학을 수학하고, 청빈과 지조를 중시했던 가정환경으로 인해 지적 성격을 지녔다. 그리하여 식민지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에서 꿈의 세계를 동경하게 된다.²⁶⁾ 이러한 상상력은 지성을 바탕으로 공상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그는 결국 현실로 되돌아와 좌절하게 되는 꿈과 좌절의 변주가 신석정 초기시의 핵심이다.²⁷⁾ 시에서 환상은 현실과 가상의 관계로 현실의 결여를 보상하려는 심리와 욕망의 부재를 추구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신석정 시에서 환상성은 초월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에서 몸과 의식이 불일치했을 때 현실의 경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전복적 상상력에서 비롯되게 된다.

25) 자크 라캉, 권택영 역,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4. pp.84~85.

26) 허소라, 『한국 현대작가연구』, 유림사, 1983, p.53.

27) 유윤식, 앞의 책, p.3.

III. 결여의 보충과 전복의 환상성

193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가 더욱더 강화되었다. 문학에 대한 사상적 탄압이 자행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시기의 문인들은 동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학적 출구를 모색했고, 순문학 잡지로써 많은 신인들을 배출하여 문학의 다양한 경향이 전개되기도 했다.²⁸⁾ 하지만 이 시기 현실로부터 일탈을 시도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 없었던 우리의 격동적 상황을 고려할 때 환상적인 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신석정 시의 경우 현실에 대한 결핍과 결여를 보충하려는 심리적 발현으로써 ‘환상적 시’를 모색한다.

환상은 욕망이 분출되는 일종의 무대와 같다. 환상이 상연되는 무대는 특정한 시·공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시인의 ‘언어’나 ‘내면’에 자리하기 때문이다.²⁹⁾ 이는 시인의 욕망을 통해서 타자의 욕망이 펼쳐지는 환상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토도로프는 장르론에서 시적으로 또는 우의적으로 독해되지 않아야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현대시의 주류는 서정시이고 자아와 주관의 요체는 영혼이나 심리, 내면, 감각, 감정 등이다. 따라서 환상은 환각적인 충족을 지향하는 심리적 기제로 욕구의 충족과 해소에 관련된 대상을 환각적으로 회복하려고 했을 때 나타난다. 이때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적 태도로써 자연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그 이면에는 불안과 갈등으로 점철된 강렬한 감정적 요소들을 덧붙여 환상을 구성하고, 그 환상은 상징적인 요소로 전환되어 나타난다.³⁰⁾

28)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pp.439~440.

29) 류순태, 『한국 현대시의 방법과 이론』, 푸른사상, 2008, pp.1~186.

30) 줄리아 시걸, 『환상』, 장수정 옮김, 이제이북스, 2003, pp.12~13.

신석정의 첫 시집 『촛불』은 1939년 11월 간행되었다. 그즈음 “노장철학과 도연명, 타고르의 영향”³¹⁾을 받았다는 그는 노장철학과 유교적인 감성으로 자연과 동화된 일체의 경지를 추구했다. “현대문명의 잡담을 멀리 파한 곳에 한 개의 유토피아를 흠모하는 목가시인 신석정임을 잊을 수 없다”³²⁾고 김기림 또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동양적인 사상과 자연의 세계에서 구현되는 이미지를 토대로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현실의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현실 바깥존재들과 개방적 세계를 재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가을날 노랗게 물들인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듯이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

호수에 안개 끼어 자욱한 밤에
말없이 재 넘는 초승달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

포근히 풀린 봄 하늘 아래
굽이굽이 하늘가에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

파란 하늘에 백로가 노래하고

31) 허소라, 「신석정론」, 『한국언어문학』, 14집, 1976, p.49.

32) 김기림, 『시론』, 백양당, 1947, p.86.

이른 봄 잔디밭에 스며드는 햇볕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 「임께서 부르시면」 전문

이 시는 1931년 『東光』 8월호에 발표한 시다. 여기에서 자연은 ‘임’을 향해 가는 통로이다. 임께서 부르시면 ‘말없이 재 넘는 초승달처럼’ ‘하늘가에 흐르는 물처럼’ ‘봄 잔디밭에 스며드는 햇볕처럼’ 현실너머의 세계인 가상의 공간으로 가겠다는 표현이다. “임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 임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태도를 정한다는 것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아름다운 순리에 두고 있다.”³³⁾ 1연에서 ‘죽음의 순리’, 2연에서 ‘소멸’, 3연에서 죽음과 소멸을 통한 ‘재생’, 4연에서 재생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임’을 만나는 것은 죽음을 극복한 재생의 순리를 의미하며 ‘무의식적 환상’³⁴⁾으로 표현된다. 환상은 실재의 표면에서 생겨나지만 실재와 조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임’은 실체가 없는 형상이고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현실에서는 은폐되고 결여되어 있는 시적 자아의 욕망이 가상현실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을 전복시킬 수 있는 보충적 힘으로 작용한다.

신석정의 초기시 『촛불』 시기는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전원생활의 여유로움 보다는 ‘악몽’의 시절을 대변하고 있다. 일제 말기의 암담한 현실 상황에서 자신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은 현실이 아닌 일탈의 공간으로써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방향 상실³⁵⁾이며, 현

33) 문덕수, 『현대시의 해석과 감상』, 이우출판사, 1982, p.357.

34) 줄리아 시걸, 앞의 책, pp.26~27.

35) Martin Heidegger, 소광희 역, 『휴머니스트에의 便紙』, 동양출판사, 1960, p.109.

실을 승화시킨 비현실의 세계이다.

①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깊은 삼림지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야장미 열매 붉어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 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부분

② 깨어지지 않을 꿈이라면
그 꿈에서 길이 살고 싶어라

- 「아 그 꿈에서 살고 싶어라」 부분

③ 햇별이 유달리 맑은 하늘의 푸른 길을 밟고
아스라한 山 넘어 그 나라에 나를 담숙 안고 가시겠습니까?

-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부분

①과 ②의 시에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정경이 이상향의 지점인 먼 나라, 꿈의 세계로 설정되었다. 시적 자아는 ‘어머니’를 매개로 어두운 현 상황을 떠난 환상의 세계를 동경한다. ‘흰물새’ ‘붉은 야장미’, ‘노루새끼’ 뛰노는 낙원에서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현실을 전복하려는 시도이다. ③여기에서도 “비극을 멀리 피하기 위하여 애써 현실의 세계에서는 아주 아스라한 먼 나라로 내 자신을 이끌고 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거기서 나의 작은 안식소를 찾아간 것이 나의

<어머니>인 자연의 품속이었습니다.”³⁶⁾라고 이상 세계로의 전이를 꿈꾼다. 김기림은 그의 시를 가리켜 “목신(牧神)이 조으는 듯한 세계를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소박한 리듬을 가지고 노래한다”고 회고했다.³⁷⁾ 그가 자주 쓰는 경어체나 설의법을 통해 강조하는 점은 만해(萬海)와 상통하는 점이고, 동화적 낭만세계는 인도의 타고르(Tagore)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자연친화적 정신은 미국의 삼림 철인 도오로우(Thoreau, 1871~1862)에서 찾는다. 또한 노장철학의 무위자연설, 도연명의 도화원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³⁸⁾ 이렇듯 ‘어머니’라는 초현실적이고 비일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결여를 보충하려는 정신활동으로 나타난다.

어머니,

만일 나에게 날개가 돌쳤다면

산새 새끼 포르르 포르르 멀리 날아가듯

찬찬히 피는 밤하늘의 별발을 찾아가서

나는 원정이 되오리다. 별발을 지키는 ……

- 「날개가 돌쳤다면」 부분

이 시는 가정해서 쓴 시다. 시적 자아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서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전복시키고자 할 때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된다. ‘나에게 날개가 돌쳤다면’, ‘별발을 지키는’ ‘원정’이 될텐데, 왜 나에게는

36) 신석정, 『신석정 전집1』, 국학자료원, 2009. p.145.

37) 김기림, 앞의 책, p.87.

38) 국효문, 앞의 책, p.132.

날개가 없을까요? 역설적 표현으로 먼 나라와 현실과의 거리를 확장시키면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이 때의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시기였다.³⁹⁾

어머니

오늘은 고양이 조름 조름

저 후원의 따뜻한 별아래서

흰토끼의 눈동자같이 붉은 석류알을 쪼개어 먹으며,

그리고 내일은 들장미 붉은 저 숲길을 거닐며

가을이 남기는 이 현란한 풍경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렵니까

- 「가을이 지금은 먼 길을 떠나려하나니」 부분

가을의 자연 풍경이 미적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가을이 먼 길 떠나기 전에 들장미 붉은 가을 숲길을 따라 하염없이 걷고 싶은 풍경이다. 신석정 시의 근본적인 동기는 모두 자연 관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일제에 대한 현실적인 강박으로부터 탈피하고픈 마음은 심리적인 메카니즘(mechanisms)으로 작용한다. ‘어머니’ ‘누님’, ‘일람’, ‘에레나’ 등 비실제적인 가상공간을 찾음으로써 스스로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는 욕구를 전위시키고 있다.⁴⁰⁾ 여기에서 ‘어머니’는 자연의 신비나 전원적

39) 1929년 대공황에 휘말린 일본의 정치적·군사적 정세는 경제공황을 가속시켰다. 그리하여 우카키 총독은 내선일체의 동화정책을 추진시키는데 한편 자력갱생이니 남면북양이니 하여, 저희들의 대륙침공의 병참기지를 만들려고 했다. 1938년에는 일제파쇼의 거두인 남차랑이 총독으로 부임하여 황국식민화 운동이 강행되고, 조선상상 보호 관찰령 공포, 국민정신 총동원령 강화, 지원병제 및 노무동원제 실시, 창시제 선포 등으로 일제의 탄압은 극도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 등을 거치면서 경제적 수탈과 문화적 말살, 그리고 마침내 민족말살의 궁지에까지 몰리게 된다. 조용만, 『일제하 한국신문화 운동사』, 서울: 정음사, 1975, p.192.

40) 신희천, 「석정시집 “춧불”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국민대 북악논총』 1집, 1983, p.15.

인 낙원을 알고 있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 닫힌 세계에서 밖으로 초월을 가능케 해 주는 존재⁴¹⁾, 나를 이상세계로 담속 안고 갈 수 있는 절대적 존재이다. 또한 어머니는 어두운 현실을 전환해 줄 수 있는 매개자로 시적자아가 역동적인 상상력을 발현시키고자 하는 지점⁴²⁾이며, ‘무의식적 환상’의 공간인 것이다.

이렇듯 ‘어머니’를 매개로 이상 세계로의 일탈은 시적 자아가 현실을 극복해내는 대안이다. 여기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은 현실 일탈에 대한 비실재적 대안이며, 이는 당대의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시적 자아의 결여를 보충함과 동시에 전복적 환상성의 접점인 것이다.

IV. 이상적 자아와 실존적 의지

1945년 일제의 암흑에서 조국 광복을 맞이하긴 했지만 시인이 갈망했던 바와는 다른 시간들이 계속된다. 그의 두 번째 시집 『슬픈 牧歌』는 1947년 출판되었지만 그 제작연대는 1935년부터 1943년까지로 일제의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때로 신석정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악몽의 시절이다.⁴³⁾

41) Emmanuel Levinas,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4, p.142.

42) 광광수, 김현, 『비술라르 연구』, 민음사, 1981, p.33.

43) “『文章』지에 기고한 시가 두 차례나 교정쇄에 붉은 잉크로 상처를 입고 되돌아오더니 끝내 『文章』지는 폐간되었다. 『人文評論』이 『國民文學』이라는 (日文)잡지로 둔갑을 하고나서, 일본말로 써내라는 협박장에 가까운 원고 청탁서가 날아들더니, 끝내 문인들은 뿔뿔이 헤어져 금강산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시골로 모두 떠나고, 서울에 가야 『國民文學』(人文評論)에 종사하는 어용들 외에는 좀체 만날 길이 없었다. 『國民文學』사에서는 일문으로 시를 써보내라고 성화를 내던 것도 그때의 일

그는 『촛불』 시절과는 다른 아름다운 꿈마저 앗아가버린 현실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슬픈 목가를 경험해야 했다. 문장지에 기고한 시는 폐간되어 되돌아오는가 하면 인문평론이 국민문학이라는 일본 잡지가 되어, 일문으로 시를 써내라는 독촉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다. 이렇듯 어두운 시대적 암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상세계로의 갈망만이 아니라 현실 내부로 들어가서 새로운 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길이다. “적어도 한편의 시는 현실의 파편은 아니다. 현실 내부 깊이 파고들어 가서 새로운 현실을 구성하는데 시의 의의는 있을 것이다.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 시인이 포착하는 불행한 현실과 대결하고 저항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불행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⁴⁴⁾ 이라고 현실과의 대응의지를 밝히고 있다.

꽃 한 송이 피어낼 지구도 없고
새 한 마리 울어 줄 지구도 없고
노루새끼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다.

나와
밤과
무수한 별뿐이로다.

- 「슬픈 構圖」 부분

이다. 해방이 되던 이듬해 출판된 제2시집 『슬픈 牧歌』는 그동안 숨막혔던 상황 속에서 써 두었던 작품들이다. 『슬픈 牧歌』 시절은 악몽 같으면서도 뼈에 저리도록 망각할 수 없는 나의 역정ियो.” 신석정, 『난초옆에 어둠이 내리면』, 지식산업사, 1974, p.280.

44) 신석정, 『자유문학』, 1960, 5월호, p.195.

이 시는 1939년 『조광』 10월호에 발표되었다. 이때의 상황은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이 시행된 때로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가로 놓인 ‘검은 밤’의 시기이다. 여기에서는 평화로운 전원 풍경은 찾아볼 수 없다. 꽃 한 송이 피어날 지구도, 새 한 마리 울어줄 지구도 노루새끼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다. 이는 일제 말기의 비참한 현실을 견디는 인고와 실존적 의지의 몸짓이 담긴 시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시에서는 이러한 현실 참여의식이 더욱더 짙게 나타난다.

막막한 이 밤이 막막한 이 한밤이
천년을 간다해도
만년을 간다해도

밤에서 살으려다 새벽이 올 때까지
심장처럼 지니고
검은밤을 지니고

- 「밤을 지니고」 부분

「슬픈 牧歌」에서 ‘어두운 밤’은 이제 내 마음까지 흘러와 ‘검은 밤’을 내 ‘심장처럼 지니고’ 살아야 할 어둠의 현실이다. 밤은 어둠이며, 어둠은 혼돈과 미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원형적 이미지를 내포한다. 밤은 내 밀한 시간으로 어둠은 의식의 심연을 통해 현실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또한 밤은 어둠을 통해서 존재의 중심부를 탐사할 수 있으며, 이는 시인의 상상력이 작동할 때 가능해진다.⁴⁵⁾ 오히려 내면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사물의 질서를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밤은

45) 정숙인, 『한국 현대시의 상상력과 층위』, 한울판, 2014, p.106.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결합되어 있으며 신석정은 현실 부조리에 대한 비판이나 고발보다는 자신의 심경을 작품에서 보여준다.⁴⁶⁾ 현실은 삼천리강토를 감옥으로 만든 ‘검은 밤’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 「나는 어둠을 껴안는다」에서와 같이 새벽이 올 때까지 검은 밤을 지니고 살겠다는 실존적 의지의 표현으로써 비극적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밝은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역설적 표현이다.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에 별도 얼어붙은/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하고/ 푸른별이 모조리 떨어질지라도” 확신과 탄식의 역설로 현실을 직시하는 시적태도를 보인다.

박두진에 의하면 “그는 이제 단순한 꿈과 동경, 명상의 새새끼 쫓는 달콤한 안일에만 머무를 순 없다. 더 거칠고 어둡고 통곡스러운 조국과 시대와 역사의 지구적인 현실에 직면하여, 그것을 응시하고 고발하면서 그 사탄의 가슴을 뚫기 위한 창을 겨누면서 새벽종이 울 때까지 함성하고 있다”⁴⁷⁾라고 평했으며, 아울러 시의 사상적 깊이와 진폭에 있어서는 만해, 지용, 영랑을 능가해가는 시인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허소라는 “한 마디로 자연에서도 원정(園丁)이 못 되고, 참여론자의 입장에 서도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석정 시의 비극적인 편력은 마치 한국시의 상처 입은 얼굴과도 같으며, 그는 서정 시인으로서 백의종군하듯 대담하게 현실 참여를 시도한 시인”⁴⁸⁾이라고 평했다.

46) “불행한 세대에 태어나서 불행한 속에서 불행한 청춘을 고스라니 장사지냈다. 그때 삼천리강토는 송두리째 감옥이었고, 일제의 몇몇 앞잡이를 제외한 모든 겨레는 그 대로 이 감옥에서 신음하는 복역수였던 것을 생각하면 새삼 가슴이 떨릴 뿐이다.”

47) 박두진, 「시의 자세와 생의 자세」,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97, p.291.

48) 허소라, 앞의 책, p.249.

세상이 뒤집어졌었다는 그리고 뒤집어지리라는 이야기는 모두 좁은 房에서 비롯했단다.

이마가 몹시 희고 수려(秀麗)한 청년은 큰 뜻을 품고 조국을 떠난 뒤 아라사(俄羅斯)도 아니요 인도(印度)도 아니요 더구나 조국은 아닌 어느 모지락스럽게 孤寂한 좁은 房에서 『그 전날 밤』을 새웠으리라.

그 뒤

세월은 무수한 검은 밤을 데불고
무수한 房을 지내갔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어느 겨울밤

새로운 世代가 오리라는

새로운 世代가 오리라는

그 막막한 이야기는 바다같이 터져나올 듯한 戀情을 짓씹는

젊은 『인사로푸』들이

켜안은 질화로갓에서 동백꽃보다 붉게 피었다.

- 「房」부분

이 시는 좁은 방에서 당시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질화로를 켜안고 새로운 세대가 오리라는 확신이 담겨 있는 시로 현실의 암담함을 극복하기 위한 기대감이 담겨있다. 이 시는 투르게네프 소설 『그 전날 밤』속의 주인공 ‘인사로푸’가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데, 불가리아의 청년 ‘인사로푸’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혁명하는 영웅적인 인물이다. 또한 시 「슬픈 서백리아」에서도 “소년 백이는/ 동백꽃 같이 타는 꿈을 지니고/ 멀지 않아 화려한 명일이 온다고/ 쓸쓸한 이 고을을 떠났”듯이 시적 자아는 ‘인사로푸’와 소년 ‘백이’를 통해 혁명을 꿈꾸고 있다. 이는 소설 속의 인물을 통해 타자와 주체가 관계를 맺으며, 현실의 경계

를 해체하고 주체가 ‘인사로푸’와 ‘백이’가 되어 현실 바깥존재들과 개방적인 세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움직이는 네 초상화」, 「봉화」에서도 젊은 청년을 등장시켜 ‘얼어붙은 내 가슴에 빨강게 타오르는 봉화’를 본다고 고백했듯이 이상적 자아를 구축하려는 실존적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1941년 「슬픈 서백리아」가 발표된 그 다음 해에 황국화 정책으로 인해 두 문장지가 폐간되고 시인은 절필의 기간을 가졌다. 이후 해방이 되었지만 그가 추구하던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이 현실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혼란스럽고 암담하기만 했다.

대숲이 좋드라
성그러 좋드라
한사코 서러워 대숲은 좋드라

꽃가루 날리듯 흥건히 드는 달빛에
기척 없이 서서 나도 대같이 살거나

- 「대숲에 서서」 부분

이 시에서도 대처법 굽히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절개의 표상인 대나무를 통해서 시적 자아가 전달된다. ‘기척 없이 서서’ 조용히 소란스럽지 않게 끝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시 「난초」에서도 “얇전하게 뿔아 올린 듯 가룩한 잎새가 어여쁘”고 그래서 “사철 난초와 같이 살고 싶”은 시인이다. 또한 「수선화」를 보면 “숨병아리 주둥이같이 연약한 움이 자라”고, “파란 혀끝으로 봄을 핥으라고 애쓰”는 모습에서 당시 음울한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고통을 참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수선화의 뽀족한 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신석정의 『슬픈 牧歌』는 비극적인 시대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일제

말기의 억압된 상황은 문학인을 비롯한 겨레 모두의 생활이 참담했으며, 현실을 직시하여 일제에 저항한 피의 기록⁴⁹⁾이다. 모든 시는 그 시대의 산물로 그 시대의 염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석정의 시 또한 글 ‘감옥에서 신음하는 복역수’로써 이상적 자아와 실존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신석정 초기시의 환상성에 대해 제1시집 『촛불』과 제2시집 『슬픈 牧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30년대는 일제 강점기와 이후 광복 등 시대적 상황의 암흑기로 인해 정신사적으로나 문학사적 흐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기이다. 이 때 신석정은 자연에 시적 자아를 투사하여 환상성을 표출하였는데 그는 전원적인 시세계를 통해 시대적 비극을 대면했다. 이는 노장사상과 도연명의 시구를 인용하여 자신의 시관을 다듬기도 했으며, 무위자연을 비롯해 현실과 자연이 조우하는 시적 태도를 보인다. 이렇듯 자연은 상상력의 근원지로써 어두운 현실에 맞서 일탈을 시도하기도 하고, 현실을 구체적으로 수용하는 의지를 담아내기도 한다.

첫 시집 『촛불』에 수록된 시들을 보면 실재가 아닌 비실재적인 시적 공간으로써 현실 바깥존재들과 개방적 세계를 지향한다. 자연과 친화되는 공간을 통해 어둡기만 한 현실을 낫설게 표현함으로써 환상성이 드러나고 있다. 두 번째 시집 『슬픈 牧歌』에서는 1947년에 출판되었지만

49) 정태용, 「신석정론」, 『現代文學』, 1967, pp.263~269.

그 안의 시편들은 1935년부터 1943년으로 일제의 탄압이 치열했던 상황이었다. 신석정에게는 어둠의 시간이며, 슬픈 목가의 시간으로 이상 세계를 노래했던 시간마저 사치에 불과한 암흑의 시간이다. 이제는 먼 세계에서 돌아와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그리하여 비극적 현실을 정신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로 대면하게 된다. 『촛불』과 『슬픈 牧歌』는 같은 시대 배경임에도 시적 경향이 다르다.

먼저 신석정 시에 나타난 결여를 보충하기 위한 전복의 환상성에서는 비현실적인 가상공간으로의 일탈을 통해 이상향을 추구해가는 시적 표현, 그것은 현실로 인한 결여의 역설적인 자기표현이며, 현실의 부정성에서 자아를 보호하려는 전복적인 환상 감각이다. 환상은 비현실적이지만 존재 자체가 소외되거나 무기력해졌을 때 하나의 방어기제로써 작동하며 신석정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출현을 시도한다. 그것은 심층에 내재된 무의식적 환상인 ‘어머니’를 통해서 가상의 변형된 실재를 꿈꾼다. 현실에서 은폐되고 억압된 자아를 이상 세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은 다른 세계로의 일탈이며 이는 ‘어머니’라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해놓고 그 지향점을 향해 가는 것이다.

또한 이상적 자아와 실존적 의지에서는 억압된 현실을 대면하여 자신을 직설적으로 응시하는 세계이다. 어두운 시대적 암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상세계로의 갈망만이 아니라 시인이 포착하는 불합리한 현실과 대결하는 것이다. 젊은 청년 ‘인사로푸’를 통해 혁신을 꿈꾸며, ‘검은 밤’은 어둡이기도 하지만 의식의 심연을 통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재생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다. 현실의 결여를 그대로 껴안고 새벽이 올 때까지 ‘검은 밤’을 지니고 살겠다는 실존적 의지의 표현을 통해 이상적인 자아를 확립시킨다.

이렇듯 신석정의 초기시 『촛불』과 『슬픈 牧歌』에서는 자연을 소재로

인간과 자연과의 경계가 없이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귀속시킨다. 암울한 현실로부터 자아를 구축하기 위한 이상세계의 갈망, 그것은 무의식적 환상으로 나타나며, 현실로부터 벗어나 실재하지 않는 불확정적인 이미지인 환상성을 매개로 결여를 보충하려는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억압과 어둠으로 점철된 현실을 직면하여 존재를 재확인하는 이상적 자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석정 초기시의 환상성에 대한 미학적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신석정, 『촛불』, 인문사, 1939.
 ———, 『촛불』, 대지사, 1952.
 ———, 『슬픈 牧歌』, 낭주문화사, 1947.
 ———, 『氷河』, 정음사, 1956.
 ———, 『山の 序曲』, 가림출판사, 1967.
 ———, 『대바람 소리』, 한국시인협회, 1970.
 ———, 『내 노래하고 싶은 것은』, 한국시인협회, 1970.
 ———, 『난초잎에 어둠이 내리면』, 지식출판사, 1974.
 ———, 『신석정 전집1』, 국학자료원, 2009.

〈논문 및 단행본〉

- 강외석, 「신석정 시 연구, 〈촛불〉 시집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광광수·김현, 『바솔라르 연구』, 민음사, 1981.
 국효문, 『신석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8.
 권 온, 「김춘수 시의 환상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18, 한국시학회, 2007, pp.95~
 120.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0.
 김경복, 「신석정 시 연구: 유토피아 의식 연구」, 2001.
 김기림,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人文評論』 창간호, 1939.
 ———, 『시론』, 백양당, 1947.
 김 석, 한국프랑스철학회 역, 「자율적인 시니피앙 논리의 효과적인 문학」, 『프랑스
 철학과 문학비평』, 문학과 지성사, 2008.
 김옥성, 「신석정 시의 근대적 자연미와 공동체적 연구」, 『한국학』 36-4호, 한국학중앙
 연구원, 2013, pp.173~200.
 김주연, 「아도르노의 문화사회학」, 『예술과 사회』, 민음사, 1979.
 노 철, 「판타지 문학의 타자성과 불확정성」, 『문학마당』, 2005.

- 류순태, 『한국 현대시의 방법과 이론』, 푸른사상, 2008.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82.
- 문덕수, 『현대시의 해석과 감상』, 이우출판사, 1982.
- 문두근, 「신석정 시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박두진, 「석정의 시」, 『現代文學』, (1968, 1).
- _____,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97.
- 박은미, 「신석정과 김상용 시에 나타난 자연비교연구」, 『인문과학논집』 제16집,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pp.87~102.
- 박호영, 「장만영 시의 환상성 연구」, 『국어교육』 제113호, 한국어교육학회, 2004, pp.743~769.
- 배현자, 『이상 문학의 환상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소 미, 「신석정 초기시에 구현된 상상계 연구」, 『세계문학비평연구』 54, 세계문학비교학회, 2016, pp.29~58.
- 신희천, 「석정시집 『촛불』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북악논총』 1집, 국민대학교, 1983, pp.11~28.
- 유윤식, 「신석정 초기시 고찰」, 『인문학연구』 2,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5, pp.47~64.
- 윤지영, 「‘환상적인 시’와 ‘환상시’의 가능성」, 『한국문학과 환상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편, 예림기획, 2001.
- 이길상, 「신석정의 중기시 연구」, 『국어문학』 61, 국어문학회, 2016, pp.237~261.
- 이상오, 『현대시의 상상력과 자연』, 역락, 2006.
- 이성교, 『한국 현대시 연구』, 과학정보사, 1985.
- 이창민, 『현대시와 판타지-한국 현대시의 환상성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8.
- _____, 「이장희 시의 낭만성과 환상성」, 『우리어문연구』 제23집, 우리어문학회, 2004, pp.511~554.
- _____, 「한국 현대시의 환상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제27집, 우리어문학회, 2006, pp.143~179.
- 이현승, 「백석 시의 환상성 연구」, 『한국시학연구』 34, 한국시학회, 2012, pp.133~153.
- 정숙인, 『한국 현대시의 상상력과 층위』, 한출판, 2014.
- 조병춘, 『한국현대시평설』, 태학사, 1995.

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허소라, 「신석정 연구」, 『한국언어문학』 14집, 한국언어문학회, 1976, pp.227~249.

자크 라캉, 권택영 역,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4.

로지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2001.

Martin Heidegger, 소광희 역, 『휴머니스트에의 便紙』, 동양출판사, 1960.

Emmanuel Levinas, 강영안 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4.

줄리아 시걸, 『환상』, 장수정 옮김, 이제이북스, 2003.

츠베탕 토도로프, 이기우 역, 『덧없는 행복-루소론·환상문학 서설』, 한국문화사, 1996.

캐서린 흄,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2000.

프랑수아 페이몽 다니엘 콩페르, 고봉만 외 역, 『환상문학의 거장들』, 자음과 모음,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Fantasy of Shin Seok jeong's Early Poetry

Jeong, Soog-In

This study focused on the fantasy of Shin Seok jeong's early poetry, and reviewed his first collection of poetry, 『Candlelight』 and his second collection of poetry, 『Sad pastoral songs』. These two volumes of poetry show the illusion of subversion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poetic ego using nature as a subject, and through the ideal ego and existential will, we can grasp the world of poetry.

Fantasy is an active product that arouses imagination. This is an unrealistic and ambiguous image that appears in the form of a deviation from the contradictory reality and acts as a way of resistance and subversion.

The late 1930s was a period when the Japanese imperialist system was further strengthened, and even in literature, because of the 'Integration of Japan and Chosun', people lived with nature while resisting or being silent. As a factor that sublimates this tragic situation to another dimension, Shin Seok-jeong expresses the lack of reality in his book of 『Candlelight』 through an object called 'mother', a virtual space. This was an attempt to overthrow and restore existing ideas into an unreal world, and was expressed as an illusion after Freud's study. In addition, 『Sad pastoral songs』, expressed by the ideal self and existential will, implies a different poetic world from the 『Candlelight』 by showing a socially participatory attitude as a countermeasure to reality. It comes to accepting the present in a representational system. Just as 'night' is dark, and he can recognize the center of existence, he also strengthens his aspirations and conviction for a new generation through 'Insalofu'. This is the spirit of endurance that endures the pain of darkness, and

constructs an ideal self waiting for the dawn by removing artificial and temporary candlelight.

The reason why we study the fantasy of Shin Seok jeong's early poetry is that we can glimpse the imagination of lack and subversion, which are virtual spaces suitable for the situation of the time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discover the poetic self of the will of regeneration, and to grasp the natural aesthetic origin of the poetry world of Shin Seok jeong.

Key Words : Shin Seok jeong, Fantasy, lack, subversion, Ideal, reproduction, will

정숙인

소속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soog-in@hanmail.net

이 논문은 2021년 5월 10일 투고되어
2021년 6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6월 25일 게재 확정됨.